



20일 자전거 동호회원 80여명이 영산강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길을 이용해 광주 남구 죽산보를 가로지르며 이동하고 있다. 다음 달 개장 예정인 자전거 길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행사는 영산강의 발원지인 담양을 출발해 광주 승촌보와 나주 죽산보 등을 거쳐 목포 영산강하구언까지 103.9k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억울한데 입증까지 하라고... 분노 폭발

정전대란 피해 접수 첫날 41건 5860만원 신고

납기 못 맞춰 금 간 신용은 뭇로 증명하나

중기청, 광주·전남 60곳 7억3천만원 집계

“전어와 새우, 꽃게는 5분만 산소 공급이 끊겨도 죽고 맙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배를 뒤집은 전어를 건져내기도 바쁘는데 사진 찍을 정신이 어딴습니까. 그 땀 한방이 의도적으로 전기를 끊은 지도 몰랐고...”

광주시 북구 연제동에서 횡집을 운영하는 김모(63) 씨는 정전피해 신고 접수 첫날인 20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신고센터를 방문해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접수를 하면서 증빙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죽은 고기를 건져내느라 열 받는데 한 가하게 사진 찍고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김씨는 또 증빙자료를 팩스로 보내라는 한전 직원의 설명에도 “영세업자에게 팩스가 어딴겠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조모(52) 씨는 병창고에 들어있던 재료를 모두 버렸다. 혹시 상했을지 몰라서다. 당연히 이날 저녁 장사는

- 정전대란 피해보상 신고하려면
- 정전대란 피해보상 신고하러면
- 정전대란 피해보상 신고하러면

중일 공장을 멈춰야 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복구하느라, 또 정전될까봐 작업을 재개하지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우리에게 증명하러니 너무나 처사”라며 반발했다.

김기홍 광주경찰서 사무처장은 “정부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를 당사자가 입증하라는 것은 문제”라며 “여론이 들끓어 정치적으로 결정한 보상대책이 시간끌기용은 아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파악한 중소기업 피해는 4588개 업체(301억 9100만원)이며, 이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은 60여업체 7억3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전피해 접수 첫날인 20일 오후 광주 북구 오치동 한전 광주전남본부 신고센터에서 정전 피해를 입은 한 시민이 접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접수된 업체가 49곳 4억 1123만원에 달하고, 하남산단에서만 200여개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돼 피해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9·15 정전 피해 신고센터’ 운영 첫날인 20일 한전에 광주·전남지역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41건에 5860만원이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신고센터에는 문의 전화는 간간히 있었지만 피해 접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 동부권도 ‘KTX 시대’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 전철화사업 완료

내달 초 개통·서울~여수 3시간 32분 주파

서울 용산역과 여수역 구간 중 익산과 여수 구간(전라선)의 복선전철화사업이 최근 완료되면서 전남은 서부권 호남선에 이어 동부권에도 KTX 시대가 열린다.

180.3km에 달하는 익산~여수 복선전철화는 2001년 착공한 이후 10년만에 완공됐다. 이 구간에는 KTX 산천이 투입돼 내달 초 개통식과 함께 공식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 용산역에서 여수역까지 소요시간은 3시간32분으로 종전 단선시대 무궁화호와 비교하면 2시간12분, 새마을호보다는 1시간46분 각각 단축된다.

전라선 예상 정차노선은 익산~전주~남원~곡성~구례~순천~여천~여수역 구간이다. KTX를 타고 서울 용산에서 여수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전남은 2004년 호남선에 이어 이번 여수·순천과 중부권인 구례·곡성을 경유하는 전라선 구간도 복선전철화사업을 마쳤으므로 사실상 도내 전역에서 KTX시대를 맞이할 셈이다.

이번 복선전철화는 내년 5월 개막을 앞둔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동부지역 굵직한 국제행사 교통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광양제철,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국가산업단 등 기업들이 즐비한 동부권 물류수송의 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접근성 개선에 따른 지역 인지도 상승으로 관광객 증가도 예상되고,

호남고속철 10조5000억 투입 2017년 완공

국토부,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확정

오는 2017년까지 호남고속철도 1·2단계 완공에 10조5000억원이, 경전선 동순천~광양~진주 구간에 1조 4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국토해양부 20일 “오는 2015년까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의 교통 기반시설에 관한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모두 146조원이 투자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 초 발표된 20년 단위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은 2016년 이후 사업으로 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역시 전남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무안 공항 경유를 반영하는 등의 기존 노선에 대한 변경 없이 예산안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간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146조원 중 광주·전남에 투자되는 액수는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제3차 투자계획은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그간 미흡했던 교통 수단 간 연계성·통합성·투자 효율성을 강화하는 교통체계 구축 등을 핵심으로 했다.



불면증 한방(韓方)으로 치료!

경희한의원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된다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침구과

진료 안내: 환병 / 스트레스 질환

진료 시간: 평 일: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안내 ※ (건물 옆 매표기 센터가)

침·뜸·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